'眞諦' 위한 각오·서원 있어야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⑪ 버려야 하는 세 가지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큰 뜻을 말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해 보라."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곧 바로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선남자 선여인은 정법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세 가지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세 가지는 몸과 목숨과 재산을 말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에 몸 받을 것이 있으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여의고 부서짐이 없이 항상 그대로 있어 변하지 않는 불가사의한 공덕인 여래의 법신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과 다음에 몸 받을 것이 있으므로 필경에는 죽음을 아주 여의고 끝없이 항상 그대로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과 일체의 매우 심오한 불법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과 다음에 몸을 받을 것이 있으므로 중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줄어들거나 다함이 없는, 필경에 불가사의한 가지가지 공덕을 모두 다 얻게 되어야 하며 일체 중생들의 뛰어난 공양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버리는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을 거두어들여 언제나 일체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우러러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법이 사라지려 할 때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사부대중이 서로 붕당을 만들어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여 흩어지더라도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된 짓을 하지 않고, 정법을 즐거워하고 정법을 거두어들여 법의 벗이 될 것입니다. 법의 벗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큰 힘을 보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진실의 눈이시며, 진실한 지혜이시며, 법의 근본이시며, 법을 통달하시며, 정법에 의지하므로 또한 모두 아시고 보실 것입니다."

승만 부인은 계속해서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일(正法攝受)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법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을 떠나 바른 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법을 거두어들이려는 사람은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하였다. 이는 정법을 위해 일체의 집착을 끊고 법신의 몸을 얻고 불법을 얻고 불가사의한 공덕과 중생의 공양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정법을 섭수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몸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세속적 환경의 속된 가치를 우선하거나 편협한 자아의식으로는 정법인 대승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의 진정한 가치인 진제(眞諦)를 위해 온몸을 던진다는 각오와 참된 서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불법의 참가치는 출세간법의 진제(眞諦)에 있고 속제(俗諦)에 있지 않다. 비록 진속이 다르지 않는 진속불이(眞俗不二)라 하지만 법을 위하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이 나올 때 정법이 지켜지며 섭수의 공이 살아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승의 서원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에 의해 정법의 가치가 살아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정법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하나라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불교는 법본주의(法本主義)이자 동시에 인본주의(人本主義)인 점을 천명하고 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깨달음을 통해 탄생한 불교가 법(法)인데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사람(人)이 깨달았으므로 이점에서는 법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비심 사홍서원과 보리심 함양으로 '成佛'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㉞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견해

대표적인 서원, 사홍서원(四弘誓願)

불자 여러분! 자비심에 바탕을 둔 중생구호의 '서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의 공통적인 서원이라는 의미에서 총원(總願)이라고도 불립니다.

사홍서원은 첫째,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둘째,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셋째,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넷째,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의 네 가지 맹세를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첫 번째 일체의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피안(彼岸)에 도달하겠다는 맹세, 두 번째 다함이 없는 그 많은 번뇌를 모두 끊겠다는 맹세, 세 번째는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배워 깨닫겠다는 맹세, 네 번째는 가장 존귀하고 그 이상 뛰어난 것이 없는 불도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러 성불하겠다는 맹세, 이 네 가지를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홍서원은 대승불교의 신앙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차후에 보리(菩提)를 이루는 자량(自量)입니다. 그러므로 무상정각을 얻어 성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비심에 바탕을 둔 사홍서원과 보리심의 함양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친보살은 〈불성론〉에서 사홍서원을 갖추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중생이 무변하기 때문에 항시 머문다는 것은 초발심시에 사홍서원을 한다. 한량없는 열 가지 큰 원을 일으킨다. 만약 중생이 한량없다면, 나의 서원도 한량이 없을 것이며, 중생이 만약 다 한다면 나의 원도 다할 것이다. 중생이 이미 한량이 없기 때문에 화신(化身)도 언제나 세간에 머물고, 중생을 교도(敎導)함에 다함이 없다."고 사홍서원을 밝힙니다.

불자 여러분! 수행자는 사홍서원을 통해 대비심과 서원과 보리심의 함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비심은 사홍서원의 분명한 근본이기 때문에 대비심의 함양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며 사홍서원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원생(願生)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서원뿐만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중생 세계에 스스로 태어나는 원생(願生)을 하고 계십니다. '원생'이란 말의 의미는 대보살들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워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중생들의 세계에 다시 재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력에 의해 윤회세계에 탄생하는 업생(業生)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이 스스로 대비원력의 의지적인 서원을 일으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중생이 고통 받는 세계에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의 원생은 대자대비한 '보리심'인 것입니다. 또한 보살은 중생을 위한 서원과 원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 받는 세계에 항상 상주하며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며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살이 서원과 보리심에 인해 원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경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사론〉에서는 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열반을 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원생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편으로도 열반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리를 위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고행을 닦아야 하는가? 일체 유정을 이익 되게 하고 즐겁도록 하기 위하여 보리를 구하여 오랫동안 원을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갖추어, 괴로움의 거센 흐름에서 온갖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반의 도를 버리고 무상보리를 구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⑪ 올바른 견해의 경

나타남의 두 견해 뿌리 알아야

[싸리뿟따]"벗들이여,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벗들이여,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싸리뿟따]"벗들이여, 고귀한 제자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면, 그 만큼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팔정도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 '바른 견해'이다. 그 당시 수행자들에게도 이 바른 견해라는 주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바른 견해를 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바른 견해를 아는 순간, 그 바른 견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싸리뿟따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자아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자이다. 앎은 보편성이므로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 바른 견해를 안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견해는 어떤 하나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타남의 원인인 두 견해의 뿌리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두 견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 확신을 가진 제자를 '고귀한 제자'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두 견해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도 견해의 치우침이 없는 제자이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제시하는 견해는 선악을 구분하여 악을 지양하고 선을 높이 받드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우고 고무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지향이 잘못되었다거나 옳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나, 부처님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과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가 같아 돌고 도는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다.

두 가지 견해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착하고 건전한 것의 뿌리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의 뿌리가 각각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 도둑과 강도는 훔치고 빼앗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일일 것이고, 선량한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일인 것처럼, 오온이 처한 위치에 따라 두 견해는 완전 다르게 해석되고 평가된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억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은 선뜻 대답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고귀한 제자'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 만약 이 고귀한 제자라는 말을 알아듣기만 한다면 뒤 문장은 사실 불필요한 말들이다. 가르침을 새기고 무르익게 하여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자를 고귀한 제자라 칭할 수 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과 착하고 건전한 것을 어느 고정된 위치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착하고 건전한 것을 착하고 건전한 견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악하고 불건전한 견해를 악하고 불건전한 견해로 보지 못할 것이다. 나 '라는 견해 자체가 악하고 불건전한 견해이고, ' 나 '라는 견해가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견해이다. 이러한 바른 견해를 바르게 알기 위한 방편으로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의 뿌리는 아상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니 그 두 가지는 탐욕에서 나온 견해이지 바른 견해가 될 수 없다.

착하다는 것 착함이 아니고 악하다는 것 악한 것이 아니네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착하다는 것 착함이 아니고
'나'라는 상을 가지지 않으면 악하다는 것 악함이 아니네
위치에 따라 전변(轉變)하는 견해
탐을 따라 변하는 욕망일 뿐
바른 견해가 될 수 없고 바른 견해는 위치가 변하더라도
아상을 나라고 말함이 없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